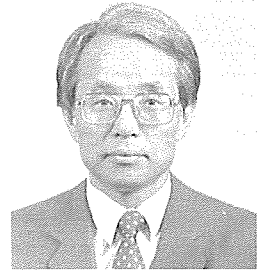


교육부 「과학교육국」 왜 출몰하는가



교육부의 직제개편을 보고 ...

박 승 재

(서울대 사대 물리교육과 교수)

최근 교육부의 직제개편에 따라 「과학교육국」과 「과학교육과」는 폐지되고, 새로 설치된 지방교육지원국에 소속되는 「과학기술과」에 과학교육행정이 파묻히는 불상사가 생겼다. 이와 같이 교육부에서 과학교육관계부서가 '국(局)' 과 '과(課)' 로 혼전하는 것이 한두번도 아니기에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과학계나 과학교육계에서 별로 논의가 없는 것은 몹시 안타까운 일이다. 문제의 핵심은 과학교육관계부서가 「국」으로 승격(?)하거나 「과」로 격하(?)되는 일보다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그 의미를 과학계나 과학교육계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있다.

과학교육국 폐지는 교육혁명에 역행

물론 교육과 관련지어 중요한 용어를 많이 나열할 수 있다. 도덕교육, 인간교육, 전인교육.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지는 것인가, 학생들 모아놓고 '정직하라'고 훈화하면 되는가, '도덕' 과목을 신설하면 되는가, 장학방침의 첫째 항목으로 설정하면 되는가, 입시제도를 바꾸기만 하면 되는가, 돈만 있으면 되는가?

'93년 「과학교육의 해」에 시작하여 올해에도 열리는 학생 과학탐구올림픽대회 위원회는 교육적 목표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자발적으로 일러 하고 기쁘게 일을 하고 싶어하는 '즐거운 사람',
- 모르는 것을 서슴없이 정직하게 질문하는 '개방적인 사람',
- 관찰실험을 하며 증거를 존중하고 찾아모으는 '실천

- 적인 사람',
-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토론하는 '지성적인 사람',
- 문제를 발견하거나 제기하고 여러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
- 자기의 생각과 방법, 전제와 결과를 되돌아보는 '발전적인 사람',
- 과학의 의미와 의의를 숙고하며 지원하고 감시하는 '의식있는 사람',
-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물자를 절약하는 '양식있는 사람',
- 자연속에서 삶과 앞에 어려움을 참고 극복하는 '인내심 강한 사람'

바람직한 학교 내외의 과학교육이 의미있게 수행된다면 무엇보다도 인간발달에 크게 공헌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과학교육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전문과학교육은 창의력 있는 잠재적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단순히 빵을 크게 부풀게 하는 일을 넘어 '과학문화 창달'에 공헌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인가 좀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면 주로 학생 각자가 책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나 TV나 라디오로 할 수 있는 내용과 외국에 보내서 하면 더 싸고 효과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는 교과는 과감하게 조치하고, 학생 혼자 공부하기 어렵고 읽는 것이나 보는 것만으로 안되는 과학실에서 신념있고 실력있는 과학교사에 의하여 철저히해야 하는 과학교육을 제도화된 학교교육의 중심으로 하는 체제를 숙고할만 하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런데 근래에 더욱 박차를 가할듯한 교육개혁 전체속에서 중요한 부분인 과학교육 개선에 큰 역할을 해야할 과학교육국을 없애는 것은 교육개혁에 역행되는 역사적 비극이다.

체제 빈약...예산 뒷받침도 없어

아마도 과학과 과학교육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갖고 과학교육국을 세웠다가 그 기대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과학교육국을 없애는 것인가? 아니면 정부방침에 따라 교육부 직제 개편작업에서 과학이나 과학교육 전공배경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막강한 실력자가 못되어 무엇인가 줄여야 하는 추세에서 밀려난 것인가? 하기는 지금까지 교육부 역대 실국장 중에 과학배경자가 얼마나 있었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명칭상 과학교육국이 있었던 자체는 허울좋은 것이었다. 큰 예산은 없었지만 국내외 여러 과학교육관계의 창구역할을 했고 직·간접으로 과학교육 활동이나 행사를 지원하며 작으나마 과학교육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애쓰고, 학생과학탐구올림픽대회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과학교육국에서 가장 핵심적이어야 할 과학교육과는 여러 과 중에 가장 '미약한(?)' 과로 있었던 것 같다. 직접 집행할 국고예산이 거의 없었고 할만한 일도 마땅하지 않았던 것 같다. 어차피 이런 빈약한 체제로 1천만명이 넘는 우리 학생들의 과학교육을 혁신하지는 못할 것이었지만 그나마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풍토는 무엇을 뜻하는가.

人材 확보...운영의 妙 살려야

과학교육연구자들은 과학교육국이 아니라 과학교육 담당 차관제도를 제안하기도 했고 그보다 더 강력한 대통령 직속의 과학교육개혁추진위원단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나 기구가 생기는 것만으로 내실있는 혁신적 과학교육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대만의 각료중 반 이상이 과학기술배경의 전문가라고 하는데 우리의 역대 과학교육국장중 과학배경의 전문가는 한명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과학교육이 정말 중요하여 강화해야 한다면 교장선생님은 과학교사 배경자가, 교육부 장관은 과학교육관련자가, 대통령은 과학교육의 전문가가 되어 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문화풍토가 문제일 것이다. 대통령보다 오히려 과학을 연구하는 것이 더 가치있는 일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많아야 하고, 교육부 장관직을 사양하며 과학교육학을 연구하는 과학교육전문가가 있어야 하며, 교장

선생님을 하기 보다 청소년에게 과학을 멋지게 가르치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는 과학교사가 많아져야 될 것이다. 없어서 안되는 것 닦하기보다는 있는 것으로 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참다운 스승이요, 현대적 애국자인 과학선생님이 많아진다면 과학교육국은 없어도 좋을 것이다. 아! 그러나 과학교육개혁을 위해 10조원의 예산을 얻거나 과학교육국을 부활시키기보다 이런 과학교육자가 많아지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려운 것인가?

사명감 가진 과학교육자 절실

과학의 배경이 없는 지도자나 행정가가 어떻게 '과학'의 특성과 중요성을 잘 알아서 과학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재원을 챙겨줄 것인가? 어떻게 과학을 가르쳐보지 않은 교육행정가가 과학교육의 필요성과 곤란성을 잘 알아서 바람직한 여건을 조성해줄 것인가?

국내외에서 과학교육자가 수만명이나 되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과학교육의 아픔을 느끼고 혁신방안을 내며 땀 흘려 일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과학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다.

과학과 과학교육을 연구하고 실천할 뿐 아니라 권력과 재력을 지닌 사람을 설득하고 국민에게 홍보하며 과학계와 교육계의 지원을 요청할 주체는 과학교육자들일 것인데...

역사의 출렁임속에 「과학교육국」이 생긴 것도 보통 일은 아니지만 없어지는 것을 예삿일로 여겨서도 안될 것이다. 이것은 결코 통치자의 의사가 아닐 것이다. 과학교육의 시대적 기대역할이 얼마나 강했으면 93년을 「과학교육의 해」를 선포하기에 이르렀고 국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없는 「학생과학탐구올림픽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겠는가?

만일 과학교육자들이 「과학교육을 질서시키는 입시제도」, 「사장(死藏)된 과학교육진흥법」, 「10년간 10조원이 필요하다는 어림에 비하면 영세한 30여억원의 과학교육기금」, 「학생당 1일 1원의 실험비」 등을 외치며 그 누군가를 원망하기만 하면 한국의 과학교육을 실제로 누가 개선시킬 것인가?

만일 과학교육자들이 시대조류의 신호를 깨닫지 못하여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기구하게도 과학교육국을 없애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변신하여 언젠가는 없애도록 왜 내버려 두었냐고 '문책' 할런지도 모른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 아닌가! 